

# 전북지역 작은도서관의 현 단계와 기능 확대에 관한 연구

## Analysis and Solution of Small Libraries in Jeon-buk Province

김 홍 렬(Hong-Ryul Kim)\*

###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전북지역 작은도서관의 현 단계 |
| II. 작은도서관의 추진과정       | 1. 운영주체              |
| 1. 작은도서관의 개념 및 기준     | 2. 수행업무              |
| 2. 추진 과정              | 3. 장서현황              |
| 3. 현황                 | 4. 운영인력              |
| III. 전북지역 작은도서관의 조성현황 | 5. 운영프로그램 현황         |
|                       | V. 결론 및 제언           |

### 초 록

최근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의 지원과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작은도서관이 수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전라북도에서도 2004년 이래로 47개의 작은도서관이 새로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모범적인 운영사례를 보이는 도서관이 생겨나기도 한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의 작은도서관 운동은 수적인 증가에만 치우친 나머지,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은 아직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것은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저하를 가져오며, 나아가 정보격차해소와 문화복지 향상이라는 작은도서관 본연의 역할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나 민간기업의 후원으로 조성된 전라북도 지역의 작은도서관의 현 단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여 작은도서관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작은도서관, 문고, 도서관법, 교육프로그램, 공공도서관, 전라북도

### ABSTRACT

Recently, small libraries have greatly increased by the support and interest of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Since 2004, 47 small libraries were established in Jeon-buk province. These libraries are equipping a new facility and collection with their support. Nevertheless, they still have many problems in operating process. This is causing degradation of the quality level of information service for local residents, further, this becomes the obstacle which solves a information divide and improves the cultural welf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of small libraries in Jeon-buk province, and then, to propose solutions to problems.

Keywords: Small Library, Public Library, Jeon-buk Province, Digital Divide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전공 부교수(hykim505@jj.ac.kr)

• 접수일: 2010년 2월 22일 • 초심사일: 2010년 3월 10일 • 최종심사일: 2010년 3월 26일

## I. 서론

최근 들어 국내 도서관계에는 ‘작은도서관’이라는 용어가 크게 회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 초 문화관광부와 국립중앙도서관이 생활밀착형 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한 비전과 정책적인 과제가 제안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정책적인 과제에 따라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민간기업의 후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작은도서관 운동은 1960년대에 출발한 마을문고운동에서 그 맥을 찾아볼 수 있다. 마을문고운동은 1960년대 초 엄대섭 선생이 사립무료도서관 설립을 시작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마을마다 도서를 보급하고, 야학이나 4H운동<sup>1)</sup>으로 젊은이들의 의식구조를 계몽하고 지식을 쌓게 한 것이다.<sup>2)</sup> 또한 마을문고는 농어민에 대한 독서진흥과 공공도서관 혜택의 제공을 위해 민간운동 체제로 창설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독서진흥운동이었던 마을문고운동은 근대화와 공업화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던 농촌지역의 문맹을 퇴치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고자 한 도서관 운동이었다.<sup>3)</sup>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은 1980년대 말 민간부분에서 자발적으로 문고를 설립하면서 ‘작은도서관’이라고 명명한 이래<sup>4)</sup> 2000년 이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에서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도서관을 모두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는 도서관법에 따라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의 기준에 미달하는 모든 도서관<sup>5)</sup>을 작은도서관으로 명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문고’와의 차별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즉, ‘문고’가 지역의 독서 인프라로서 시설중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이용자인 동시에 자원봉사, 기부, 프로그램진행 참여 등 운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운영중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sup>6)</sup> 그러나, 마을문고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작은도서관도 결코 공공도서관을 대체하는 새로운 관종이 아니며, 지역주민과 도서관을 연결하는 서비스 접점이며, 자발적 주민운동의 성격이 내포된 봉사기관이라 할 수 있다.<sup>7)</sup> 이용재 등<sup>8)</sup>은 공공도서관과 달리

1) 4H운동은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4H회를 통한 단체활동으로 지, 덕, 노, 체의 4H이념을 생활화함으로써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키우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사회교육운동이다.

2) 정기원, 전라북도 사립문고 활성화 방안 연구(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8), p.5.

3) 남영준 외, 작은도서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6), p.7.

4) 양제한, “마산지역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변화과정과 운동의 방향,”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3호(2008. 9), p.28.

5) 도서관법 제2조 4항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는 도서관을 열거하는 가운데 작은도서관의 법적인 개념을 언급하고 있다.

6) 남영준 외, 전제서, p.9.

7) 양제한, 전제논문, pp.30-31.

작은도서관은 정부의 행정서비스의 거점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보완하는 도서관서비스 포인트 기능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센터의 기능, 그리고 지역주민의 평생학습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의 장으로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주민참여 거점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의 지원과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작은도서관이 수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전라북도에서도 2004년 이래로 47개의 작은도서관이 새로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모범적인 운영사례를 보이는 도서관이 생겨나기도 한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의 작은도서관 운동은 수적인 증가에만 치우친 나머지,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은 아직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것은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저하를 가져오며, 나아가 정보격차해소와 문화복지 향상이라는 작은도서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최근에 조성된 전라북도 지역의 작은도서관의 현 단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여 작은도서관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작은도서관의 추진 과정

### 1. 작은도서관의 개념 및 기준

현재 우리가 '작은도서관'이라고 부르는 도서관은 규모 면에서 볼 때 공공도서관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그렇게 부르는 것일 뿐 역할은 공공도서관과 동일하다.<sup>9)</sup> '작은도서관'이라는 용어는 1980년대 말 관주도의 문고활동이 부진해지자 이에 대한 반성으로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인 참여운동으로 문고를 설립하면서 문고라는 명칭대신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sup>10)</sup> 문화관광부가 2004년도에 추진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서는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도서관으로의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규모나 조직, 운영면에서는 오히려 '문고'의 범주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문고'라고 하지 않은 것은 작은도서관을 인근지역의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운영되게 함으로써 각기 공공도서관의 '정보서비스거점' 또는 '분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sup>11)</sup>라는 작은도서관 명칭 사용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8) 이용재 외, 작은도서관 선진형 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7), pp.34-42.

9)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문고포함)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7).

10) 양제한, 전개논문, p.28.

11) 한국도서관협회,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4).

####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1권 제1호)

2006년 9월에 개정된 『도서관법』과 이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는 공공도서관과 문고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을 뿐 작은도서관에 대한 별도의 법적인 개념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법적인 개념의 설정은 이후 2009년 1월에 발의된 『작은도서관진흥법(안)』과 2009년 3월에 개정된 『도서관법』에서 이루어졌다. 『작은도서관진흥법(안)』에서는 작은도서관을 국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를 손쉽게 제공받게 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소규모 도서관을 지칭하고 있다.<sup>12)</sup> 그러나 불행히도 이 법은 아직 공식적으로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법 제2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시키면서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으로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의 시설과 자료기준에 대해서도 면적은 33제곱미터이상, 열람석 6석, 도서관 자료 1,000권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상에 제시된 문고의 기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명칭의 변화만 있을 뿐 규모나 시설측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운영여건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전의 공사립문고보다는 시설규모가 큰 도서관을 지칭하는 용어로 알고 있지만, 현행법상에 규정된 기준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은 공사립문고의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현태와 남영준 등의 연구에서 언급한 작은도서관의 준거조항의 범위에도 들지 못하고 있다. 즉 정현태<sup>13)</sup>는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시설기준에 미달하지만, 문고로 신고된 10평 이상의 독서시설 중 일정수준의 시설과 자료를 갖춘 공사립문고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설정하고 대략 30평 내지 40평 이상의 시설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남영준 등은 작은도서관은 30평에서 50평 내외의 규모로 공공도서관의 분관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장서는 3,000권 이상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1〉은 국내의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문고의 법적인 기준과 남영준 등의 연구에서 제시한 작은도서관의 기준을 기술한 것으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제시된 기준이며, 문고에 대한 기준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제시된 것이다.

한편, IFLA/UNESCO가 제시한 공공도서관서비스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sup>14)</sup>에서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최소조건으로서, 면적 370제곱미터, 장서 2,500권, 상근직원 1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건은 우리 나라의 도서관법에서 제시한 작은도서관의 면적, 장서, 직원에 관한 기준보다 양호한 기준이다. 이러한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개념과 기준들이 어떻게 나타나든 작은도서관은 이제 더 이상 생소한 용어가 아니며,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더욱 필요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12) 이 정의는 2009년 1월 9일 김재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작은도서관진흥법(안) 제2조 1항의 작은도서관 정의에 나와 있는 것이다.

13) 정현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활성화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1집(2006. 10), p.220.

14) 장혜란 역, 공공도서관 서비스개발을 위한 IFLA/UNESCO 가이드라인(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2).

〈표 1〉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관련 기준

	공공도서관('10)	작은도서관('10)	문고('06)	남영준('06) <sup>15)</sup>
시설	(인구 2만 미만일 때) - 면적 264제곱미터 이상 - 열람석 60석 이상	-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 열람석 6석 이상	-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 열람석 6석 이상	(본관적 역할 수행) - 30평 이상 50평 내외
자료	- 장서 3,000권 이상 - 연간증서 300이상	- 도서관 자료 1,000권 이상	- 도서관 자료 1,000권 이상	- 3,000권의 장서 - 연간 300만원 이상의 장서구입비
직원	- 330제곱미터 이하 사서직원 3명	- 사서직원 1인 이상(임의 조항)	- 규정없음	- 사서자격증을 갖춘 전문인력 배치

## 2. 추진과정

작은도서관은 지식정보격차와 정보접근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정보서비스 기관은 모든 국민들이 정보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는 정보획득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반과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책적으로 이를 지원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작은도서관을 통하여 계층간, 지역간 정보격차와 정보접근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4년 6월 문화관광부는 「문화비전21 : 창의한국」을 통하여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한 1만개 작은도서관을 확충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2004년에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작은도서관 25곳을 시범 조성하였으며, 2006년 1월에 문화관광부와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마을단위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정책과제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작은도서관 조성 과정에서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2007년 9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MBC 등의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한 지역 단위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캠페인을 시작하였고, 민간기업의 후원금 유치를 통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지식정보 및 커뮤니티공간을 마련해주는 마을단위의 작은도서관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04년도부터 시작된 중앙정부주도의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2007년부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원과 관심으로 확대되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과정에서 전라북도에서도 현재 약 47개의 작은도서관이 조성되어 주민들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정보접근을 돕고 있다. 최근에는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과 자치단체, 교육기관, ‘NHN(주)’ 등이 공동으로 학교마을도서관 개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산간벽지마을 초등학교 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문화소외지역 거주 주민들의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평생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시설보강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15) 남영준 외, 전계서, p.30.

### 3. 현황

전국의 작은도서관(문고)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국도서관통계(2008년)<sup>16)</sup>에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문고)영역에 나와 있는 통계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의 법적인 기준인 33㎡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도서관도 나타날 수 있다.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문고)영역을 대상으로 전국 16개 시도의 문고수, 1관당 연면적, 1관당 열람좌석수, 1관당 자료구입비, 1관당 이용자수, 1관당 사서수 등을 조사하였다. 이의 조사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전국 작은도서관(문고포함) 현황

구분	문고수			연면적(㎡)*	열람 좌석수*	자료구입비* (천원)	이용자수*	사서수*
	전체	공립	사립					
서울	578	415	163	38.93	7.66	45,984	1,682	0.03
부산	161	65	96	59.90	14.19	691	1,748	0.04
대구	86	12	74	43.00	15.41	11,240	4,818	0.08
인천	116	31	85	12.11	3.41	33,888	73	0.00
광주	127	29	98	55.43	18.18	10,568	351	0.02
대전	118	46	72	9.86	3.03	219	894	0.01
울산	41	15	26	42.37	12.20	569	813	0.02
경기	705	148	557	95.38	23.42	24,487	3,092	0.07
강원	144	7	135	46.42	12.38	290	257	0.01
충북	145	30	115	66.88	19.26	340	1,430	0.00
충남	135	21	114	76.60	19.75	2,237	1,881	0.10
전북	178	29	149	127.94	25.19	47,091	2,126	0.04
전남	219	54	165	28.55	7.61	392	430	0.00
경북	172	60	112	19.37	5.22	854	486	0.02
경남	251	62	189	40.69	11.17	26,568	897	0.09
제주	148	0	148	51.26	13.43	0	76	0.00
합계	3,324	1,024	2,298	50.92(평균)	13.22(평균)	12,838(평균)	1,315(평균)	0.03(평균)

\* 통계수치는 1관당 통계를 의미한다.

작은도서관의 형태를 띠고 있는 전국의 문고수는 2008년말 현재 3,324개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주체가 공립인 문고는 1,024개관, 사립인 문고가 2,298관으로 집계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새마을문고를 포함한 기존의 전형적인 문고에 해당하고 작은도서관 조성운동의 범으로 설립된 문고는 미미한 수치에 불과하다.

등록된 문고(작은도서관 포함)의 연면적은 평균 50.92㎡로 도서관법의 작은도서관 면적기준(33㎡)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열람좌석수도 평균 13.22석으로 도서관법의 기준인 6석을 초과

16) 국가도서관 통계입력시스템, 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 <<http://www.libsta.go.kr/>> [인용 2010. 1. 10].

하고 있다. 자료구입비의 평균은 12,838천원으로 집계되었으며, 1관당 연간이용자수는 약 1,315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문고에 종사하는 사서의 수는 1관당 0.03명으로 나타나 매우 미약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향후에 문고운영인력의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 Ⅲ. 전북지역 작은도서관의 조성현황

작은도서관은 2000년대 초 정보접근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안된 생활밀착형 정보 인프라이다. 기존의 공공도서관 등에서는 정보취약계층(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보다는 정보표준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 형태는 계층간 정보접근의 불평등과 정보격차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나 지역의 다른 도서관과 연계하여 지역의 문화복지거점으로서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정보의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지역은 오래전부터 마을문고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곳으로서 한국사립문고협회를 탄생에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고운동의 맥락에서 전북지역에서는 1995년 5월 '행복한 문고'를 전주시에 제1호 등록하였고<sup>17)</sup> 이것이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조성의 시초로 보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마을문고는 독서진흥과 국민계몽운동과 같은 교육적 기능에 중점을 둔 반면, 작은도서관은 독서 및 지역문화공동체운동, 문화 복지 등 기능적인 측면이 크게 확대되어 정보소외계층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도서관 시설이나 기기, 장서의 수준도 크게 확대되고 발전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최근에 조성된 작은도서관의 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마을문고에 비하여 기능과 설비가 확장되고 발전된 형태의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그 현황을 기술하고자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자발적으로 민간이 설립한 작은도서관은 제외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민간기업의 후원으로 조성된 작은도서관들이다.

전북지역에서의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크게 2가지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중앙기관의 후원으로 도나 시군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조성하는 방향이고, 또 하나는 국민은행 등의 민간기업의 후원으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방향이다. 후자의 민간기업 후원은 2008년도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현재 3개의 작은도서관이 조성되어 있다.

2004년부터 중앙정부가 도, 시·군의 지원, 민간기업후원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전북지역 작은도서관은 2009년 12월 현재 47개소이다. 2004년도 1개소의 조성으로 시작되어 2006년도 3개소, 2007

17) 정기원, 전계논문, p.6.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1권 제1호)

년도 20개소, 2008년도 16개소, 2009년도 7개소가 조성되어 현재 현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서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조성된 도서관은 22개소이며, 도·시·군의 지원으로 조성된 도서관은 23개소, 그리고 국민은행 등의 민간기업의 후원으로 조성된 도서관은 2개소이다. 또한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전주지역이 11개소로 가장 많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군산과 익산 지역이 각각 6개소, 진안지역이 4개소, 김제, 고창, 완주지역이 각각 3개소의 순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조성현황

지역 연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조성도서관수
2004	1														1(중앙)
2006		1				1		1							3(중앙)
2007	5	2	2	1	2	2	1	1	1	1	1				20(중앙7, 도13)
2008	4	2	2	1			2	2		1			2		16(중앙6/도9/기타1)
2009	1	1	2						1				1	1	7(중앙4/도1/기타2)
합계	11	6	6	2	2	3	3	4	2	2	1	1	3	1	47

<표 4>는 지역별로 작은도서관 조성현황 및 명칭을 제시한 것으로, 전주시에는 전주작은도서관, 인후비전작은도서관, 평화꿈틀작은도서관 등 11개소가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군산시에서는 구암작은도서관, 월명작은도서관 등 7개소가 조성되었는데, 군산시 지역은 완주군 지역과 더불어 전북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익산지역은 부송작은도서관, 동산작은도서관, 봄나루작은도서관 등 6개소가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 주민자치운영위원회 등이다.

<표 4> 지역별 작은도서관 조성현황 및 명칭

구분	지역	작은도서관명칭	운영주체	조성연도
중앙	전주	전주작은도서관	사회복지법인	2004
		인후비전작은도서관	교회	2007
		무지개작은도서관	천주교유지재단	2007
		팔복작은도서관	주민자치운영위원회	2007
		열린전북점자작은도서관	사회단체	2008
	군산	구암작은도서관	군산시	2006
		월명작은도서관	군산시	2007
		미성작은도서관	군산시	2007
		미룡작은도서관	군산시	2008
		홍남작은도서관	군산시	2008
		나포작은도서관	군산시	2009



구분	지역 6	작은도서관명칭	운영주체	조성연도
중앙	익산	부송작은도서관	사회복지법인	2007
		모현작은도서관	주민자치운영위원회	2009
	김제	희망남포작은도서관	주민자치운영위원회	2006
		완주	배꽃들작은도서관	완주군
	모악작은도서관		완주군	2007
	기차길작은도서관		완주군	2008
	무주	반딧불작은도서관	주민자치운영위원회	2009
	진안	마이작은도서관	새마을운동진안군지회	2006
		백운작은도서관	주민자치운영위원회	2008
	장수	장계문예복지작은도서관	장계문예복지관	2008
부안	고인돌작은도서관	부안군	2009	
소계	22개소			
도 자체	전주	평화꿈틀작은도서관	사회복지법인	2007
		호성작은도서관	주민자치운영위원회	2007
		책마루작은도서관	한기장복지재단	2008
		솔내작은도서관	한기장복지재단	2008
		물댄동산작은도서관	주민자치회	2008
	익산	동산작은도서관	사회복지법인	2007
		봄나루작은도서관	주민자치운영위원회	2008
		배산작은도서관	주민자치운영위원회	2008
	정읍	청복작은도서관	청복문화재단	2009
		북면작은도서관	주민자치운영위원회	2007
	남원	상동작은도서관	주민자치운영위원회	2008
		독우물작은도서관	주민자치운영위원회	2007
	김제	혼불작은도서관	주민자치운영위원회	2007
		죽산작은도서관	교회	2007
	진안	길보작은도서관	사회복지법인	2007
		능길작은도서관	주민자치운영위원회	2007
	무주	노계3동작은도서관	주민자치운영위원회	2008
		안성작은도서관	교회	2007
	장수	청소년작은도서관	장수군	2007
	임실	무지개빛작은도서관	임실군	2007
	순창	청소년센터작은도서관	순창군	2007
	고창	글마루작은도서관	주민자치회	2008
		선운산작은도서관	고창군	2008
소계	23개소			
민간기업 후원	전주	꿈드리작은도서관	주민자치회	2009
	고창	해마루작은도서관	주민자치회	2009
	소계	2소		
총 계	47개소			

종합해 볼 때, 현재 관주도로 조성된 전북지역 작은도서관은 모두 47개소이며, 이 중에서 전주시가 11개소로 가장 많이 조성되었다. 이들 작은도서관의 운영주체는 주민자치운영위원회나 사회복지법인, 교회 등의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것은 운영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담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점은 향후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 도서관에서는 지속적인 운영재원확보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 IV. 전북지역 작은도서관의 현 단계

본 연구는 전북지역 작은도서관의 현황을 운영조례와 비교하여 분석하여, 작은도서관의 기능 확대는 물론 활성화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민간기업의 후원으로 조성된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09년도에 조성된 7개소를 제외하고, 40개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중에서 36개 도서관이 응답하였다.

설문조사는 작은도서관의 장서, 업무, 운영인력, 운영프로그램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9년 10월 11일부터 17일 거쳐 실시되었다. 설문문항은 운영주체, 수행업무와 기능, 장서현황, 운영인력 및 운영자의 자격, 프로그램관련 문항 등 전부 8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설문항목의 구성

항목	설문내용
1	운영주체(1문항)
2	수행업무와 기능(1문항)
3	장서현황(1문항)
4	운영인력(1문항)
5	운영자의 자격(1문항)
6	프로그램(운영여부, 프로그램 수, 대상, 유형과 명칭)(4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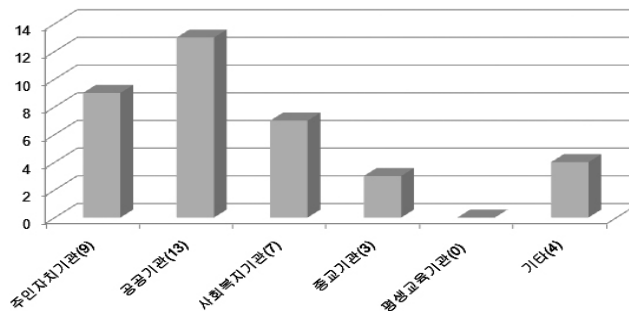
##### 1. 운영주체

전북지역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주체는 다음의 <표 6>과 같이 조사되었다. 즉, 주민 센터 등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13곳으로 전체 조사대상 작은도서관의 3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주민자치기관이 운영하는 도서관이 9곳, 사회복지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7곳, 개인, 문화재단 등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4곳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작은 도서관의 활동이 정착하는 초기단계에서 전북지역의 작은도서관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적절히 조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 작은도서관의 운영주체

운영주체	건수	비율(%)
주민자치기관	9	25.0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13	36.1
사회복지기관	7	19.5
종교기관	3	8.3
평생교육기관	0	0.0
기타(개인, 문화재단)	4	11.1
합계	36	100



〈그림 1〉 작은도서관의 운영주체

## 2. 수행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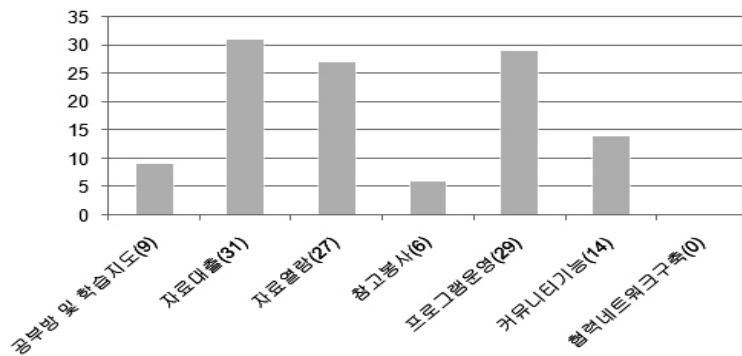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북지역 작은도서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아래의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작은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수행하는 업무로는 자료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대출은 전체 36곳 조사 대상 작은도서관 중에서 31곳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프로그램운영이 29곳, 자료열람업무가 27곳, 커뮤니티기능이 14곳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부방의 기능이나 참고봉사의 기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도서관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은 지식정보제공기능, 독서문화향상기능, 지역주민의 공동체문화 강화 기능, 지역의 도서관 협력을 위한 연계체제 구축 기능을 수행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은 자료대출과

열람 등의 지식정보제공기능과 독서문화향상 기능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지역주민의 공동체문화 강화기능이나 도서관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정보서비스기능 제고에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작은도서관의 수행업무

작은도서관의 수행업무	수행 도서관수	비율(%)
공부방 및 학습지도	9	25.0
자료대출	31	86.1
자료열람	27	75.0
참고봉사	6	16.7
프로그램운영	29	80.5
커뮤니티기능	14	38.9
협력네트워크구축	0	0.0

\* 복수응답.



〈그림 2〉 작은도서관의 수행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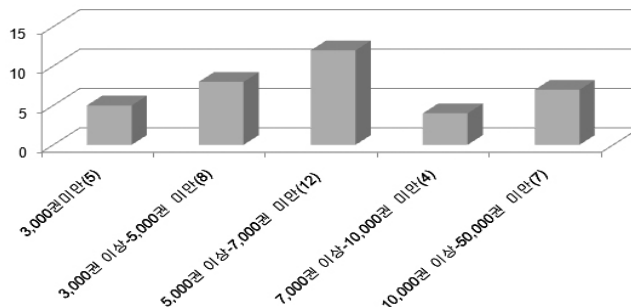
### 3. 장서현황

작은도서관의 장서는 지역주민의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독서문화향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이자 작은도서관을 지탱하는 으뜸의 요소이다. 현재 전북지역의 조사대상 작은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장서는 대체로 3,000권 이상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북 지역의 작은도서관에서 5,000권 이상에서 7,000권 미만을 소장한 도서관이 12곳으로 전체의 3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3,000권 이상에서 5,000권 미만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이 8곳(22.2%), 10,000권 이상에서 50,000권 미만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이 7곳(19.5%)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50,000권 이상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은 한곳도 없었으며, 3,000권 미만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도 5곳(13.0%)이나 되었다. 이것은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조례에 나타난 1,000권 이상의 장서는 만족하지만, 지역의 독서문화향상을

위한 인프라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례에 나타난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향유권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장서의 확충과 더불어 장서의 질적인 수준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8〉 작은도서관의 장서현황

장서 현황	도서관수	비율(%)
3,000권 미만	5	13.9
3,000권 이상 - 5,000권 미만	8	22.2
5,000권 이상 - 7,000권 미만	12	33.3
7,000권 이상 - 10,000권 미만	4	11.1
10,000권 이상 - 50,000권 미만	7	19.5
50,000권 이상 - 100,000권 미만	0	0.0
합계	3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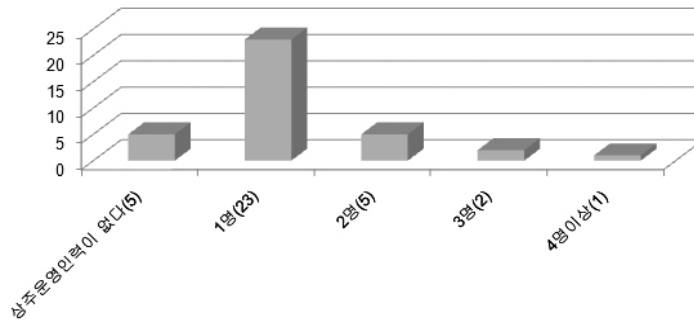
〈그림 3〉 작은도서관의 장서현황

#### 4. 운영인력

전북지역 작은도서관 운영조례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읍·면지역은 2명 이상, 동지역은 4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방학 중에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운영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래의 〈표 9〉는 전북지역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을 조사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영인력이 1명이라는 도서관이 23곳으로 전체의 63.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상주인력이 없는 도서관이 5곳으로 13.9% 차지하고 있었으며, 2명인 도서관이 5곳(13.9%), 3명인 도서관 2곳(5.5%), 4명 이상인 도서관이 1곳(2.8%)으로 나타났다. 운영조례의 조건을 만족하는 도서관은 몇몇 도서관을 제외하고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주인력이 없는 도서관도 5곳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운영인력은 순수한 자원봉사자를 제외하고 고용시에는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바, 이로 인하여 운영인력의 고용을 꺼리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 운영 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9〉 작은도서관의 운영 인력

운영 인력	인원	비율
상주인력이 없다	5	13.9
1명	23	63.9
2명	5	13.9
3명	2	5.5
4명이상	1	2.8
합계	36	100



〈그림 4〉 작은도서관의 운영 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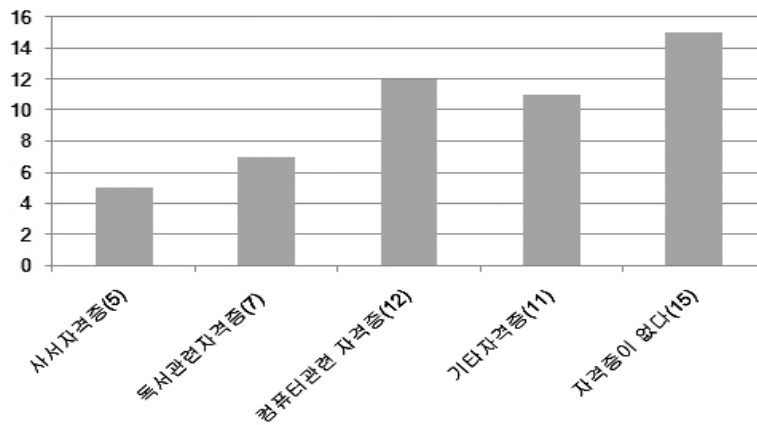
또한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에는 운영자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는 사서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사서자격증이 없을 경우에는 독서 및 유아교육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초중등교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도서관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로 명시하고 있다.

〈표 10〉은 전라북도 작은도서관의 운영 인력의 자격을 조사한 결과이다. 운영조례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격증으로 언급한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있는 도서관은 5곳으로 전체 36개 도서관의 13.9%에 해당한다. 사서자격이 없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자격을 살펴보면, 독서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이 있는 도서관은 7곳으로 전체의 19.5%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컴퓨터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도서관과 기타 자격증을 소지한 도서관이 각각 12곳과 11곳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자격증은 운영조례에서 명시한 운영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자격증이 없다고 응답한 도서관도 15곳이나 되며 이는 전체의 41.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따라서 자격증이 없다고 응답하였거나 컴퓨터관련 자격증이나 기타자격증 등 운영조례에서 명시한 운영자의 자격을 소지한 도서관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운영인력의 전문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에서는 운영인력의 전문성제고를 위해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것도 운영자격이 제대로 갖추고 나서는 일인 것 같다.

〈표 10〉 운영인력의 자격증 현황

운영 인력의 소지 자격증	도서관수	비율(%)
사서자격증	5	13.9
독서관련자격증	7	19.5
컴퓨터 관련 자격증	12	33.3
기타 자격증	11	30.6
자격증이 없다	15	41.7

\* 복수응답.



〈그림 5〉 운영인력의 자격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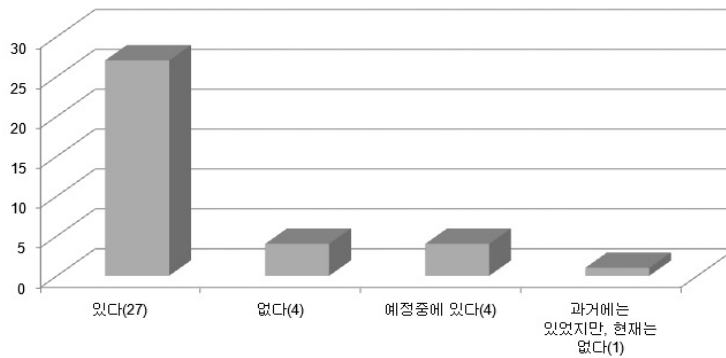
### 5. 운영프로그램 현황

지식정보의 제공기능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독서문화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의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작은도서관의 대표적인 기능이다. 이를 반영하여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조례에도 작은도서관의 기능에 이들을 명시하고 있다.

〈표 11〉은 전북 지역 작은도서관에서 교육 문화, 독서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이 결과를 살펴보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응답을 한 도서관이 27곳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대부분의 도서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수치인 9곳의 도서관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주민의 독서문화향상 및 공동체문화 강화라는 작은도서관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이 주민밀착형 독서시설로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표 11〉 프로그램 운영여부

프로그램 운영 여부	건수	비율
있다	27	75.0
없다	4	11.1
예정 중에 있다	4	11.1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1	2.8
합계	36	100



〈그림 6〉 프로그램 운영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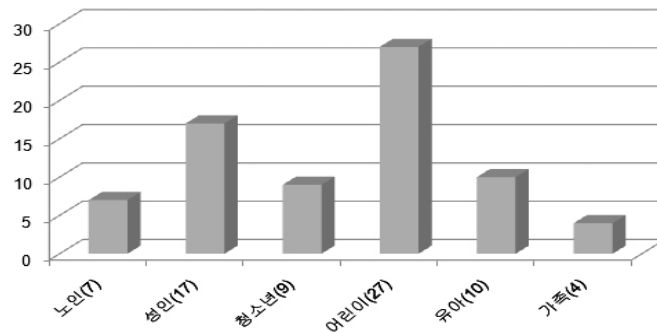
또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을 대상으로 운영 프로그램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의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강좌가 27개로 전체의 36.5%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강좌가 17개로 전체의 23.0%, 유아가 10개 강좌로 13.5%, 청소년이 9개 강좌로 12.2%, 노인이 7개 강좌로 9.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어린이, 유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며, 노인을 포함한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운영프로그램의 대상

운영 프로그램의 대상	프로그램 강좌수	비율(%)
노인	7	9.4
성인	17	23.0
청소년	9	12.2
어린이	27	36.5
유아	10	13.5
가족	4	5.4
합계	74	-

\* 복수응답(대상표시 프로그램만 해당)





〈그림 7〉 운영 프로그램의 대상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독서관련프로그램, 문화교양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가족프로그램 등이 있다.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용재 등<sup>18)</sup>은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의 범주를 독서중심프로그램과 문화중심프로그램, 수여형프로그램과 참여형프로그램, 지역별특성화프로그램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도서관문화프로그램관련 연구에서 제시된 프로그램의 유형을 참작하여 이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독서관련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향상과 독서문화 향유권을 신장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말한다. 문화교양프로그램은 작은도서관이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서 영화상영, 강연이나 강좌 등이 해당된다. 교육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의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도서관기능적인 측면이 강하다. 체험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해당된다. 가족프로그램은 가족 간의 화합과 이해를 높이고, 건전한 가족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북지역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유형 가운데서 독서관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26곳으로 전체의 72.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관련 프로그램 강좌수는 51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문화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서관은 20곳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관련 프로그램의 강좌수는 34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다음으로 교육프로그램이 14개 도서관에서 23개 강좌로, 체험프로그램이 10개 도서관에서 15개 강좌로, 가족프로그램이 6개 도서관에서 7개 강좌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볼 때, 작은도서관의 운영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독서관련프로그램과 문화교양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반면, 지역주민간 그리고 가족간의 공동체이식을 함양하기 위한 체험프로그램이나 가족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은 지역의 공공도서관 및 주민센터, 지역

18) 이용재 외, 전제서, pp.59-62.

문화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미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에서 관행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표 13〉 운영 프로그램의 유형

운영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프로그램 강좌수
독서관련프로그램	26(72.2%)	51(39.2%)
문화교양프로그램	20(55.6%)	34(26.2%)
교육프로그램	14(38.9%)	23(17.7%)
체험프로그램	10(27.8%)	15(11.5%)
가족프로그램	6(16.7%)	7( 5.4%)
합계	-	130(100%)

〈표 14〉는 전북지역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유형과 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강좌의 명칭이다. 강좌의 명칭은 동일한 프로그램 유형에 해당하고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먼저 독서관련프로그램은 책읽어주는 엄마, 독서퀴즈 골든벨, 독서교실, 어르신 독서토의, 주부독서회, 책읽어주기, 독서퀴즈, 독서토론, 독서지도, 동화 읽는 어른들의 모임, 책읽기와 책 읽히기, 원어민과 영어읽기, 날마다 책읽어주기, 그림책 읽어주기, 북 스타트, 글짓기와 시낭송회, 책 읽어주기, 여름독서교실, 겨울독서교실, 독후감쓰기, 스토리텔링, 동화책 읽어주기, 할머니와 떠나는 동화나라, 글이랑 책이랑, 어린이 청소년 독서교실, 독서문화교실, 우리랑 책이랑, 동화 구연, 이야기 만들기, 독서논술지도, 어른들의 동화 읽는 모임, 그림책과 함께하는 신나는 클레이, 애니메이션, 엄마와 손잡고 책을 읽어요, 영어스토리텔링, 독서논술지도, 어린이 영어 동화 구연, 어린이논술, 주부독서회, 동화랑 책이랑, 생각이 몽글몽글 글쓰기, 부모독서지도, 동화 구연 등의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화교양프로그램은 국선도, 영화상영, 바둑교실, 그리스로마신화, 서양미술사, 클래식이야기, 미술심리, 올바른 미디어와 미디어특강, 토요일영화상영, 팝스 잉글리쉬, 낭독회, 북아트 교실, 종이랑 친구랑, 입체퍼즐, 역사수업, 부모코칭교육, 두드림(난타), 서예 강좌 등의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은 영어랑 친구해요, 외국인 여성의 한국어강좌, 신문 활용 교육, 어린이방학교실, 청소년공부방, 풍선아트, 네일아트, 미술지도, 문해 교실, 한자교실, ITQ 한글워드 자격증 따러 가자!, 영어그림책 스토리타임, 일본어회화교실, 비즈공예, 논술지도, 논술지도와 자격증취득과정, 생활일본어, 생활과학교실, 주산, 암산, 생활과학, NIE, 어린이 미술교육, 교과서 속 논술, 한자미술, 중국어회화, 한글교실, 퀵트교육 등의 강좌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4〉 운영 프로그램의 강좌 명칭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 강좌 명칭
독서관련프로그램	책읽어주는 엄마, 독서 퀴즈 골든벨, 독서교실, 어르신 독서토의, 주부독서회, 책읽어주기, 독서퀴즈, 독서토론, 독서지도, 동화 읽는 어른들의 모임, 책읽기와 책 읽히기, 원어민과 영어읽기, 날마다 책읽어주기, 그림책 읽어주기, 북 스타트, 글짓기와 시낭송회, 책 읽어주기, 여름독서교실, 겨울독서교실, 독후감쓰기, 스토리텔링, 동화책 읽어주기, 할머니와 떠나는 동화나라, 글이랑 책이랑, 어린이 청소년 독서교실, 독서문화교실, 우리랑 책이랑, 동화 구연, 이야기 만들기, 독서논술지도, 어른들의 동화 읽는 모임, 그림책과 함께하는 신나는 클레이, 애니메이션, 엄마와 손잡고 책을 읽어요, 영어스토리텔링, 독서논술지도, 어린이 영어 동화 구연, 어린이논술, 주부독서회, 동화랑 책이랑, 생각이 몽글몽글 글쓰기, 부모독서지도, 동화 구연
문화교양프로그램	국선도, 영화상영, 바둑교실, 그리스로마신화, 서양미술사, 클래식이야기, 미술심리, 올바른 미디어와 미디어특강, 토요일영화상영, 팝스 잉글리쉬, 낭독회, 북 아트 교실, 종이랑 친구랑, 입체퍼즐, 역사수업, 부모코칭교육, 두드림(난타), 서예 강좌
교육프로그램	영어랑 친구해요, 외국인 여성의 한국어강좌, 신문 활용 교육, 어린이방학교실, 청소년공부방, 풍선아트, 네일아트, 미술지도, 문해 교실, 한자교실, ITQ 한글워드 자격증 따러 가자!, 영어그림책 스토리타임, 일본어회화교실, 비즈공예, 논술지도, 논술지도와 자격증취득과정, 생활일본어, 생활과학교실, 주산, 암산, 생활과학, NIE, 어린이 미술교육, 교과서속 논술, 한자미술, 중국어회화, 한글교실, 퀵트
체험프로그램	한지공예표현, 동화 듣고 종이로 표현하기, 종이접기,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러브클레이, 책 읽는 세상 만들기-그림책과 함께하는 신나는 클레이, 도서관1박2일, 문화현장체험, 바느질, 우리고장의 보물을 찾아서, 도서관견학체험, 북 아트, 리볼 아트, 오물락 조물락
가족프로그램	비빔범벅 가족한마당, 엄마와 함께하는 인형놀이, 도서사랑캠프, 책 따라 역사체험,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갑시다!, 솜씨자랑 전시회, 도서관에서 하룻밤자기, 다문화가족교실, 작은 극장

체험프로그램은 한지공예표현, 동화 듣고 종이로 표현하기, 종이접기,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러브클레이, 책 읽는 세상 만들기-그림책과 함께하는 신나는 클레이, 도서관1박2일, 문화현장체험, 바느질, 우리고장의 보물을 찾아서, 도서관견학체험, 북 아트, 리볼 아트, 오물락 조물락 등 지역주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족프로그램은 비빔범벅 가족한마당, 엄마와 함께하는 인형놀이, 도서사랑캠프, 책 따라 역사체험,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갑시다!, 솜씨자랑 전시회, 도서관에서 하룻밤자기, 다문화가족교실, 작은 극장 등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족 간의 사랑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강좌는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진 강좌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하나의 프로그램에 포함시켰으며, 이것은 응답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도서관기준에 맞춰서 표시한 것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예를 들면, 북 아트 교실은 문화교양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모두에 해당될 수 있으나, 이것은 응답자가 표시한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라북도 지역의 작은도서관들은 공공기관과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복지기관, 종교기관 등의 민간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군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주도로 운영되는 도서관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것은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을 낳게 한다.

둘째,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운영조례에 제시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도서관의 대부분은 자료대출과 열람업무 등 지식정보제공 기능으로 나타났다. 운영조례에 기능으로 제시된 독서문화향상기능, 지역주민의 공동체 문화강화기능, 도서관협력을 위한 연계체제 구축기능 등은 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민의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문화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기능과 정보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도서관협력체제 구축 등 정보서비스 접점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장서현황에 있어서는 전라북도의 작은도서관 운영조례의 기준은 만족하나,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향상을 위한 인프라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독서 자료의 양적확충과 더불어 장서의 주제별 불균형이나, 장서의 질적인 수준도 동시에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에서는 운영조례의 기준을 만족하는 도서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주인력이 없는 도서관도 5곳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원인은 순수한 자원봉사자를 제외하고 고용시에는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바, 이로 인하여 운영인력의 고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운영조례에 명시된 운영인력의 자격에는 사서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격증을 소지한 운영자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자가 소지한 자격증도 대부분이 운영조례에서는 명시되지 않은 컴퓨터관련 자격증이나 기타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이러한 운영인력으로는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작은도서관의 향후 발전을 도모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섯째, 독서, 교양, 교육, 체험관련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도서관이 대부분이었으나, 약 25%는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향상 및 공동체 문화의 강화라는 작은도서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섯째,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며, 성인과 노인, 그리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조사결과 대부분 독서관련프로그램과 문화교양프로그램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간 그리고 가족간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체험프로그램이나 가족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을 비롯한 대부분의 운영프로그램은 지역 고유한 특색을 반영하거나, 공동체의식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의 공공도서관 및 주민 센터, 지역문화센터 등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것은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해서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운영자들의 희생적인 자기노력으로 작은도서관이 현재의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운영자들의 자기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운영지원 조례에서 명시한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자료구입, 운영경비 등의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운영이 피폐해거나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최소한의 자료구입비나 운영경비 명목의 재원지원으로는 명시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운영자들은 대부분 자원봉사자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를 거의 수령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질 높은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운영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둘째,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운영자들의 전문성이야말로 작은도서관의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운영자로 채용하거나, 운영자들의 전문성제고를 위한 직무교육이나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셋째, 각종 운영프로그램을 지역의 주민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조정하거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수강 대상도 기존의 주민교육기관에서 소외된 가족이나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의 운영프로그램들은 지역의 공공도서관이나 문화센터, 평생교육센터,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들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또 반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생활밀착형 도서관으로서 그리고 지역커뮤니티센터로서의 작은도서관의 기능에 맞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나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지식정보제공중심에서 독서문화향상기능, 지역의 커뮤니티센터로서의 기능, 주민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기능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달리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소규모 문화공간으로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 공동체가 형성되는 곳<sup>19)</sup>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능보다는 더욱 확대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다섯째, 정보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공도서관 및 전문도서관 등과의 도서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운영협의회나 공공도서관협의회, 지역대표도서관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자료의 공유, 다양한 질문의 공유, 프로그램운영협력, 대출반납의 협력 등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

19) 김준, “작은도서관 개념에 대한 이해,” 우리동네 작은도서관(서울 :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2007), p.29.